

8년 연속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4대강 예산·안보 무능론' 고리 민주, '연평도 정국' 탈출 시도

여야 계수소위 회의 신경전... 전운 고조 "6일 반드시 처리" VS "실력저지 불사"

국회가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를 가동한 가운데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계수소위 1차 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부처 예산안을 시작으로 나흘간 감액 및 증액 심사를 진행한 뒤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계수소위가 이제야 가동됨에 따라 국회는 올해도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2003년 이후 8년 연속 '위법'을 저지르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우선 한나라당은 이번에 속전속결 예산심사를 예고하며 여야간 합의된 일정에 따라 5일까지 예결소위 활동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한 뒤 6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계수소위에서 예산 수정안을 놓고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수정안을 만들어 6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75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 참석,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줘야 한다"며 "이는 불가연속 속에 경기회복 흐름이 장기화되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를 반영하듯,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해 국가운영

넘겨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삭감하면 국민이 익이라는 자세로 계수소위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수소위 가동과 함께 4대강 예산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의 4대강 예산이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았으나 한나라당은 예결위 계수소위에 정부안을 올려 속전속결로 예산심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도 예산심사 대상에 포함시킨 뒤 전체 4대강 예산에서 6조7천억원을 삭

감하고, 불요불급한 보와 준설 예산도 대폭 깎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상정을 막기 위해 위원장직을 접거, 실력저지에 나섰다. 친수법은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에 공공기관이 주택·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계수조정 소위 가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여야 간의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며 "특별법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강행처리가 실력저지의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원로연락회의에서 시민사회 및 종교계 등 재야 원로들은 정부의 대북 정책과 4대강 사업 강행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민주당에도 "제 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대 백낙청 명예교수는 "연평도 포격은 북측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용인할 수 없는 일이나 동시에 정부가 평화를 만들기를 커녕 안보 무능을 드러낸 것은 국민으로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이런 위기를 이용해 4대강 사업 등을 밀어붙이는 것은 엄지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청하 스님은 "현 정권은 국민 요구, 지난 정부 정책과 반대로만 가는 '놀부정부'"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의지를 결집, 여권에 압력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안보무능 정권의 4대강 지지 결의대회'를 연데 이어 오는 5일에는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정국으로 잠시 중단된 장외 행보를 재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4대강 몸으로 막을 것"… 5일 장외집회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여권에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 왔던 민주당이 2일 4대강 예산안 안보 무능론 등을 고리로 '연평도 정국' 탈출을 시도하고 나섰다.

4대강 사업과 청와대 민간사찰 의혹 등 연평도 정국에 파문했던 현안들을 다시 끄집어내 대야 투쟁의 동력으로 삼으며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에서 열고 4대강 예산 전면 삭감 및 부자감세 철회, 불법사찰 국경조사,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평화를 지키고 민생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을 '정쟁'이라고 몰아붙이면 이를 마다하지 않고 싸우겠다"면서 "이 요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4대강 예산에 대해 "그 어떤 희생도 치르더라도 몸으로 막겠다"면서 "이 같은 요구의 관철을 위해 진보개혁 정치세력이 손을 모으고 시민사회와도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져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국회 내 예산투쟁과 함께 장외에서도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오전 당장 당 소속 국토해양 위원들은 4대강 사업의 핵심법안인 친수법 상정 저지를 위해 위원장직을 접거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손 대표는 4대강 저지를 위한 제정당·종교계·시민사회 비상대책회의, 원로연락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 연평도 정국으로 잠시 중단된 장외 행보를 재개했다.



국토위 여야 몸싸움 2일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이 위원장직을 접거, 송광호 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원이 송 위원장에게 전달하려던 의사진행 관련 서류를 민주당 의원들이 빼앗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에 위장취업한 것"

광주 온 김정길, 모호한 대북정책 비난

민주당 소속인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장은 2일 '햇볕정책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지속해야 하고, 남북관계 긴장 관계가 계속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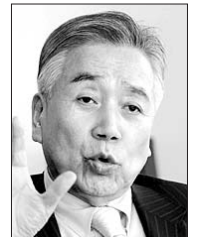
김 전 장관은 이날 광주에서 빛고을시민포럼(이사장 전갑집) 주최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햇볕정책으로 남북 간에 평화무드가 조성돼 전쟁을 격정하지 않고 살았고, 마음 놓고 금강산·개성에 여행도 다녔다"라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거꾸로 가면서 한반도가 긴장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면 안보도 문제지만,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고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경제가 불안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정책이 보수층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국민은 전쟁이 발발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며 "북한을 너무 코너로 몰면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을 의존하게 돼 한반도 정세가 더욱 불안해지고 한반도 문제에서 남북이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햇볕정책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는 손학규 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해 "햇볕정책과 관련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에 위장 취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권을 의식한 손 대표가 진보와 중도, 보수층을 모두 끌어안으려다 보니 햇볕정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며 "너무 대권만 의



식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모두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6·2 지방선거 때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44.6%의 높은 득표율을 올린 김 전 장관은 "19대 총선 때 부산·경남에서 민주당 공천경쟁이 예상된다"며 "민주당이 부산에선 5~6석, 경남에선 3~4석을 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기반시설 사업이 부진하는 등 호남지역의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차질을 우려한 목소리가 크다"며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외교부, FTA 美의회 로비에 26억 편성"

박지원 "정부·여당 과거정권 탓 끝내야"

박주선 의원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미국 의회 인준을 위한 미국 측 법률·의회 자료료 명목 등으로 26억7900만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특별위 박주선(민주당) 의원이 2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내년 '한미 FTA 미국 의회 인준 및 후속조치'를 위해 의회활동 자금 11억4000만원,

대미 경제·통상네트워크 사업 6억7800만원, 홍보 3억4500만원, 통상정책과 법률 자문 각각 2억7600만원 등의 예산을 책정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는 명백한 로비 증거로, 한국에서 로비는 불법"이라며 "외교부가 FTA 협상장에서는 풀며는 벌여리로 있다가 협상장 밖에서 한미 FTA 로비 등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무기와 장비를 갖췄더라도 수집된 정보를 제대로 분석할 줄 모르는 국정원과 군 수뇌부의 소프트웨어가 신통치 않으면 국가 안보는 장담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과거 정권을 탓하는 것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국정원의 정보위 보고 내용을 토대로 군의 대응사격 포탄

14발이 북한의 방사포 진지를 비켜 떨어진 지점을 표시한 그림을 보여준 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한발이라도 실수해 진지에 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한발도 명중하지 못했는지, 특별한 지혜가 있다고 탄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실패한 대북정책인 비핵재방 3000에 대한 반성, 군의 개혁,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국민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존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처럼 정이 화제다 얼굴이며 몸매가 모델처럼 뽀짝하게 생기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기적은 머릿결 보드랍고 말랑말랑한 피부 촉촉한 이는 눈동자 가슴과 신체 부위가 실재한 키는 1m50이 되며 색채가 짙은 생생한 눈빛과 건강한, 분홍적인 성숙을 엿보이듯 장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별에 맞춘 내여자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주분량 폭주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가방도 드립니다.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캐레대금·개인차용금·공중·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 010-8494-9484

인생이 순탄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은 성명 삼자에 다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은가족의 이름을 무료로 감정해드립니다.

신생아작명전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름입니다.

타고난 사주(숙명)가 하나인 것처럼 자기에게 맞는 이름(운명)도 하나뿐입니다. 예로부터 사주가 좋은 거지는 있어도 이름 좋은 거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숙명(사주:년·월·일·시)은 바꿀수 없지만, 운명(성명)은 바꿀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사주에 좋은 행운(幸運)과 복(福)이 들어있다 하여도 성명삼자(姓名三字)가 좋지 않을 때에는 필히, 불의의 재앙(災殃)과 악운(惡運)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성명삼자로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의 길흉화복(吉凶禍福) 및 재물운(財物運)을 신기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성명삼자로 일평생의 모든(運)이 좌우되오니 이번 기회에 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기 가능하며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허가] 社團 星谷 傳統文化 硏究會 대표전화 227-2356 星谷 作名·鑑定 專門 哲學院 010-7671-5623

위 처: 동구계림동 마사회 진주기구 사거리 옆 성곡빌딩 1층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섭취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02302-469931(정의철)

생노병사 불노병정 책을 드립니다

사이텍 070-7786-6631 010-6306-7070 (미쓰고) 070-7786-9710 010-7102-7070